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의 대학 내 교육요구 탐색

2021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전공

이 용 성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의 대학 내 교육요구 탐색

지도교수 정 종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전공

이 용 성

이용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강 기동 (인) 

심사위원 정 종원 (인) 

심사위원 최 경주 (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7월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유학생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지방 소재 종합 사립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5가정, 총 10명의 유학생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거이론 방법의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면담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분석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유학생들은 가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학생생활 간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동시에 가족들을 부양하며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 문제와 같은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같은 국가 및 종교의 유학생과 가족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유학생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한계를 경험하며 대학을 통한 체계적인 생활정보 안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유학생 가족들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중심현상에는 언어적 제약, 인간관계의 한계, 비자로 인한 취업 불가 등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신분으로 인한 제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유학생 가족들은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 교육적 요구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는 유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비형식적 교육 제공 필요의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요구 탐색을 통해 유학생 관리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 교육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유학생 및 가족의 교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과 같이 비형식적 학습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목적으로 한 대학 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유학생, 유학생 가족, 대학교, 교육요구, 근거이론

목 차

국문초록	iv
I. 서론	1
II. 선행연구 분석	3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	3
2. 유학생할 적응과 가족의 역할	16
III. 연구 방법	22
1. 연구 설계	22
2. 연구 참여자	22
3. 자료 수집	24
4. 자료 분석	24
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25
IV. 연구 결과	26
1. 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26
2.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31
3.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37
4. 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의 교육적 요구의 핵심범주	42

V. 결론 및 제언	45
1. 논의 및 결론	45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46
참고문헌	49
부록	55
ABSTRACT	56

표 목 차

<표 II-1> 국외 한국인 /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 및 유학·연수 수지	5
<표 II-2>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5
<표 II-3>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6
<표 II-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현황	8
<표 II-5> 외국인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 현황	9
<표 II-6> 국내 대학 재학생 수와 외국인 유학생 수	13
<표 II-7> 2022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비교	14
<표 II-8>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16
<표 II-9> 유학생 배우자의 체류자격 설문결과(2017년)	18
<표 II-10>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제공 프로그램	19
<표 II-11>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20
<표 III-1> A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 현황(2020년)	22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	23
<표 IV-1>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26
<표 IV-2>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28
<표 V-1>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한국어 학습 경험 비교	45

그림 목 차

[그림 II-1] 전 세계 고등교육의 국제학생 및 외국인학생 증가 현황	3
[그림 II-2] 국외 한국인 /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	4
[그림 II-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	10
[그림 II-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2
[그림 II-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추진 계획	15
[그림 III-1] 연구 단계별 자료 분석과정	25
[그림 IV-1]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패러다임 모형	32
[그림 IV-2]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의 패러다임 모형	37
[그림 IV-3]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모형	43

I. 서론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14). 1975년 80만 명 수준이었던 전 세계 유학생 수는 2018년 560만 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 간 연 평균 4.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20).

유학생은 타 이주형태에 비해 유치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은 향후 출신국의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간 정치, 경제, 학술적 교류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안영진·최병두, 2008). 또한 유치국 입장에서 유학생들은 자국의 교육수지 적자를 해소할 중요한 재정 수입인 동시에 우수인재 유입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유학생의 유치 필요에 근거가 된다(OECD, 2020).

우리나라 정부는 1996년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 계획」 마련 이후,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2004년부터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강동관, 2020).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 유학생들의 수학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tudy Korea Project 사업을 통해(정유리, 201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990년 2,237명, 2004년 17,023명에서 2020년 기준 153,695명까지 증가하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1) 현재는 2023년도 유학생 수 20만 명을 목표로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은 표면적으로는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의 측면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를 해결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신인철 외, 2018).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유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유학생할 지원 등 질적 측면에서의 유학생 관리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신인철 외,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유학생 대상 지원 및 정책은 학생 유치 측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도혜, 2019). 물론 대학에서도 자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박은경, 2011) 대부분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은 자국민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유학생의 경우 새로운 문화와 접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경식(2019)은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응 문제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인 외로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등은 유학생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이 된다(Lewthwaite, 1996, 김경숙, 김민희, 2014, 재인용).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유학생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학자들은 적응유연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유명란 외, 2013). 적응유연성이란 내적 개인 체계 및 외적 환경 지지체계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2; Waller, 2001, 유명란 외, 2013, 재인용). 특히 응집력이 높은 외적 환경 지지체계인 가정환경은 개인의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유명란 외, 2013). 유학생생활 적응에 있어 지지적인 가정환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혜중(1998)은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적응에 있어 가족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응능력 등이 유학생 가족들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가족의 역할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유학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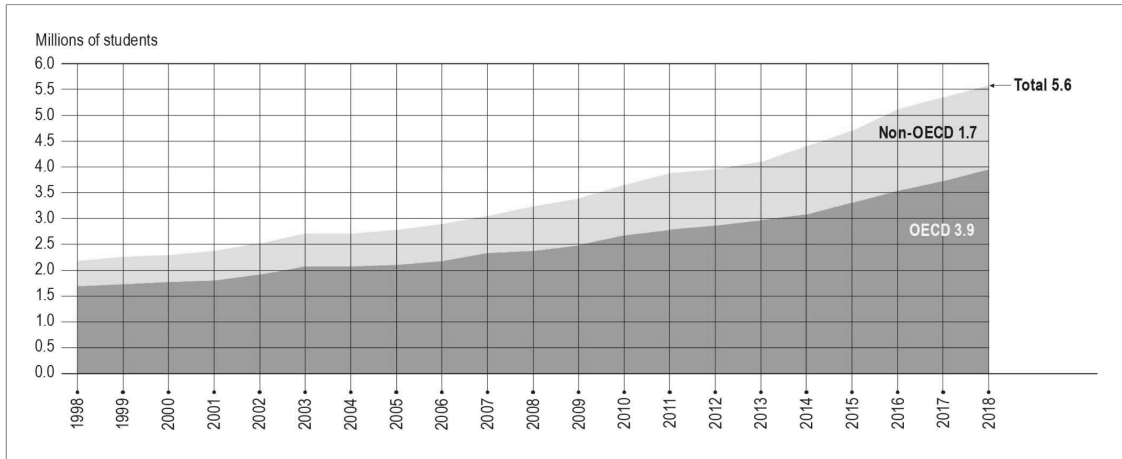
첫째,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들은 어떠한 대학 내 교육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의 대학 내 교육적 요구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

가. 세계 유학생 현황 및 유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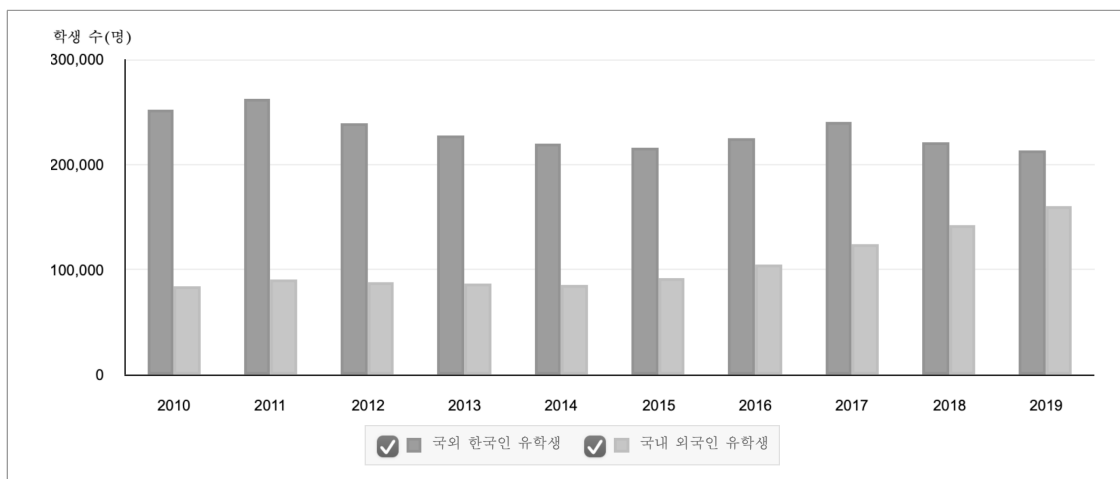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각 국가는 고급 인력의 확보를 위해 유학생들을 이민자로 수용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지원, 유학생 자국민화 정책을 통해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은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었다(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14).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전 세계 유학생 수는 [그림 II-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560만 명의 고등교육 학생이 해외에서 수학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두 배 이상이며, 유학생 수는 최근 10년 간 연 평균 4.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20).



[그림 II-1] 전 세계 고등교육의 국제학생 및 외국인학생 증가 현황(OECD, 2020)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유학을 가는 학생보다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유학을 떠나는 자국 학생 대비 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3의 수치를 보이며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그 비율은 1:10로 높게 나타났다(OECD, 202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로 유학을 오는 학생보다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OECD, 2020).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0년 기준 83,842명에서 2019년 160,195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교육부, 2020).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를 보인다. 2019년 기준, 전체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수를 100명으로 본다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75명 정도의 수준이다.



[그림 II-2] 국외 한국인 /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교육부, 2020)

국내외 유학생 수의 현황을 경제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 대학생이 해외 유학 및 연수를 통해 소비하는 비용은 약 34억 달러(한화 3조 8800억원)인데 비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출한 금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1300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의 약 3.5% 수준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수지는 약 3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3조 7500억원으로 교육부 한 해 전체 예산의 약 5% 수준을 보인다. 최근 10년간의 유학·연수 수지 적자액의 총합은 약 47조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육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국가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고 국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각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정미경, 2008).

<표 II-1> 국외 한국인 /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현황 및 유학·연수 수치

(단위 : 명,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9
국외 한국인 유학생		251,887	213,000
국내 외국인 유학생		83,842	160,165
유학·연수 수지	국내수입액	37.4	121.2
	해외지급액	4,488.0	3,447.0
	수입-지출	-4,450.6	-3,325.8

주: 국외 한국인 및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한국교육개발원, 2020)
유학·연수 수치 통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0)

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최근 10년간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아래 <표II-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총 153,695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4%(6,470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위과정의 유학생의 수는 113,003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며 어학 연수생 및 그 외 기타 연수생은 39,480명으로 26.5%의 비율을 보인다(교육부, 2020).

<표II-2>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교육부, 2020)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학생수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기준 중국 유학생이 67,03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38,337명(24.9%), 우즈베키스탄 9,104명(5.9%), 몽골 6,842명(4.5%), 일본 3,174명(2.1%), 미국 1,827명(1.2%)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유학생 수에서 베트남의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 간 두 배 가까이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 K-POP 열풍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의 학생이 전체 유학생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학생 유치 대상을 아시아 및 중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백성준, 2015)

<표 II-3>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교육부, 2020)

국 가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7	68,184	14,614	2,716	5,384	3,828	2,767	26,365	123,858
비율(%)	55.1%	11.8%	2.2%	4.3%	3.1%	2.2%	21.3%	100.0%
2018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27,620	142,205
비율(%)	48.2%	19.0%	3.9%	4.8%	2.8%	1.9%	19.4%	100.0%
2019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6.2%	24.4%	4.9%	4.8%	2.9%	1.9%	19.2%	104.2%
2020	67,030	38,337	9,104	6,842	3,174	1,827	27,381	153,695
비율(%)	43.6%	24.9%	5.9%	4.5%	2.1%	1.2%	17.8%	100.0%

유학 유형별에 따라 살펴보면 자비 유학생이 141,397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대학초청장학생(4.2%) 정부초청장학생(1.9%), 자국정부과견장학생(0.2%)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생의 10명 중 9명이 자비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에 있어 정부 및 대학의 큰 예산의 투입 없이도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개선, 외국인 유학생 정주 및 취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자발적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백성준, 2015).

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현황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1967년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선발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 방안」,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박순영, 2016).

배소현, 김희수(2014)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분석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크게 양적 확대 시기(2001~2007)와 질적 관리 시기(2008~2011)로 구분하였다. 양적 확대 시기는 정부가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 방안」 발표를 통해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유학 정책의 변화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했다. 2000년 6천명 수준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201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영어강의 확대 및 전담교수 채

용, 외국인 대상 장학금 확대 및 기숙사 신설, 원스톱 상담체제구축 및 입학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배소현, 김희수, 2014). 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2004년 스테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①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②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형성, ③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한국 유학 홍보, ④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및 생활환경 개선, ⑤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확대, ⑥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의 추진과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양적 확대 시기의 정부의 정책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 증가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유학수지 적자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각 대학의 유학생의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배소현, 김희수, 2014)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스테디코리아 발전 방안」을 시작으로 유학생 지원을 위한 질적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①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화된 유학프로그램 개발, ②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를 위한 정책 및 교류 추진, ③유학생 선발절차 강화 및 온라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 도입, ④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영어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확대, 거점별 공동기숙사 건립 유도, 의료혜택 확대 등), ⑤인턴십 등 유학생 취업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2010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을 통해 유학생 유치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학생 국가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절차, 학사 및 생활 관리, 지원 체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대학의 경우 우수 대학 인증, 하위 5% 대학은 현장 조사 및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배소현, 김희수, 2014). 이상,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4>과 같다.

<표 II-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현황

구분	연도	정책	목적 및 주요 추진전략
양적 확대 시기	2001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목적)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 (전략) 영어 강의 확대와 전담교수 채용, 장학금과 기숙사 신설, 원스톱 상담지원체제 구축 및 입학 절차 간 소화, 유학생 실적과 대학 평가 연계
	2001 ~ 2007	2004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목적)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 (전략) 유학생 초청 사업 확대, 해외 네트워크 형성, 유학 홍보 강화, 수학 및 생활환경 개선, 한국어와 문화 보급, 효율적 행정지원체제 구축
질적 관리 시기	2008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 방안	(목적)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 (전략) 유학 프로그램 개발, 정부초청 장학금 확대, 유치국 가 다변화, 유학생 선발 절차 강화, 유학생 정보시 스템을 통한 관리, 공동 기숙사 건립 유도, 취업 및 귀국 후 지도 강화
	2009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목적)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 방안의 유학생 질적 관리 강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 (전략) 유학 안내시스템 개선, 유학생 선발 체계화, 대학별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유학생 콜센터 운영, 기숙사 확충, 주기적인 유학생 관리 실태 조사, 유학생 지 표의 공시 항목 반영, 전문기관 육성
	2008 ~ 2011	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목적)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다변화 (전략) 정부초청장학생의 지역 확대, 현지 상담센터 운영, ODA 및 국가 간 협력 연계 전략 개발, 정부초청 유 학생 관리를 위한 Gate-way 대학 선정, 현지 Pre-school 및 현지 온라인 수업 등
	2011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선진화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목적)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 제시 (전략)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제의 적합성과 대학의 국제 화기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제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및 제재조치 시행

주: 배소현, 김희수(2014)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는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양적 확대 시기인 2000년대 초반의 유학생 대상 정책은 학생 유치 측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도혜, 2019). 이에 정부는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 등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질적 관리 시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학생 대상 정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유학생의 증가, 질적 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성과의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산재하고 있다. 서영인 외(2012)는 우리나라 유학 정책의 문제점으로 유학생 유치에서 졸업 후 관리까지의 장단기 로드맵의 부재, 실행 부처 간의 협력 부족, 부족한 재정지원을 들고 있으며, 인증제 등 질 관리 평가 지표가 대학 현장의 실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라.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정책 및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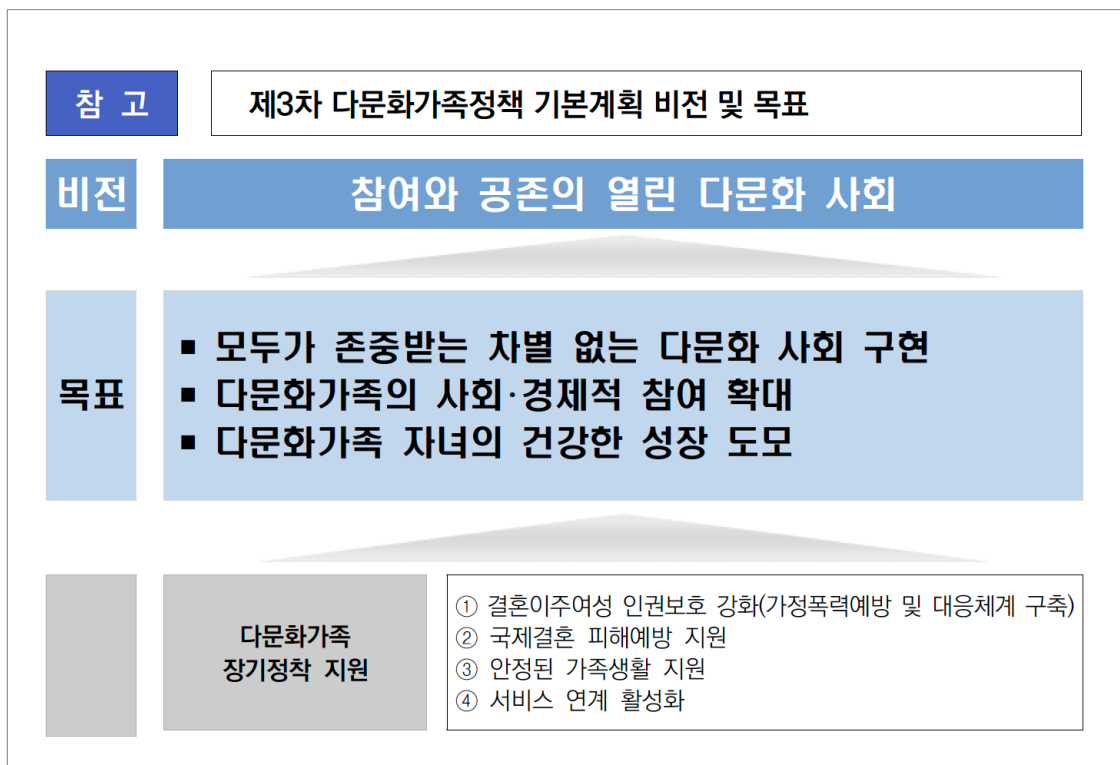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 주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제 3차(2018~2022) 기본계획을 실행 중이며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표 II-5> 외국인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 현황

구분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주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무총리실
설치근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8조제1항 (2007.5.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2011.1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04.3.17)	재외동포정책 위원회규정 (대통령훈령 63호)
구성연도	2007	2009	2003	1996
목적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정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범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및 조율

주: 장주영, 박민정(2019) 참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 지원,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량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장주영, 박민정, 2019). 여성가족부(2020)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추진 목표로 하여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지원으로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를 이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셋째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로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진로 지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넷째는 상호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로 정책 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다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외국인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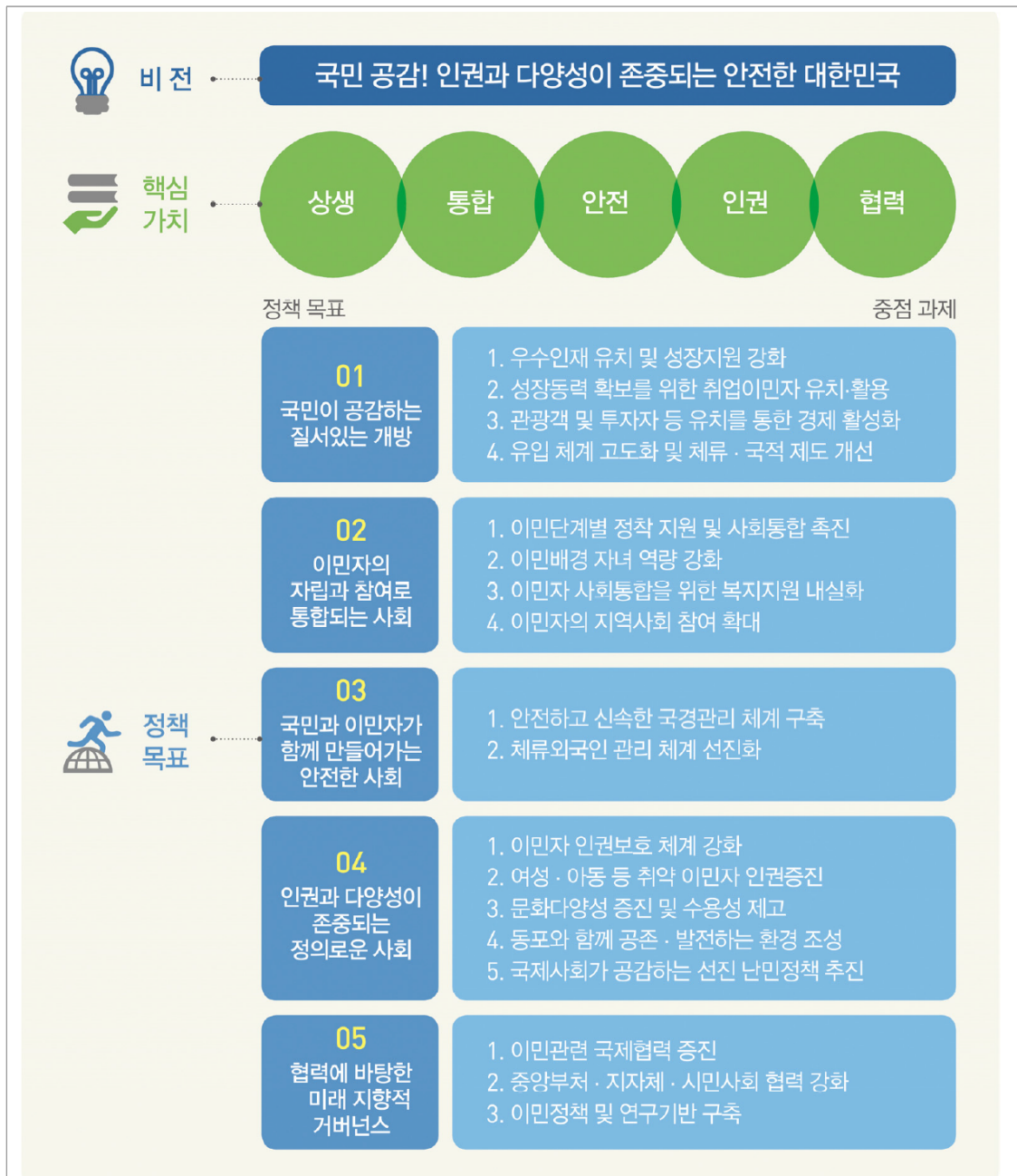


정책 과제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그림 II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20)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외국인의 유입과 그들과 함께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은 현재 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이민자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 및 참여 확대, 안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체계, 이민자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 국내외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체제구축 등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다섯 가지 핵심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한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법무부, 2020).

이 중 유학생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실 운영, 유학생 취창업 연계 확대 노력 등이 있다(법무부, 2020).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한 가족 초청범위 확대와 같은 정책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 지원, 국내 취업 연계 등에 치우쳐있는 한계를 보인다.



[그림 II-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2020)

김이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배우자는 공통적으로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여건 상 본격적인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유학생 가족들은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부부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공되어 유학생 가족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부부나 유학생 부부 등과 같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설사 국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 아니다(이경희, 2010).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자 집단이나 이들은 다문화 가족정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현재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학생 가족은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결혼 부부 가족과는 성격과 수요가 다른 만큼 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내 프로그램이 유학생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학생 가족들의 경우에는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유학생 유치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대학 재학생 수는 총 2,663,787명으로 2007년 2,910,719명에 비해 8.48% 감소한 반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어학연수 포함)는 약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대학생 수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1.69%에서 2020년 5.7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현재까지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에 비해 적은 수치이나 증가 추세로 볼 때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은경, 2011).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운영에 고민이 많은 대학들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는 하나의 이유이다.

<표 II-6> 국내 대학 재학생 수와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07	2020	증감	증감비율
대학교 재학생 수	2,910,719	2,663,787	-246,932	-8.48%
외국인 유학생 수 (학위과정)	32,056 (1.10%)	113,003 (4.24%)	80,947	253.52%
외국인 유학생 수 (어학연수 포함)	49,270 (1.69%)	153,695 (5.77%)	104,425	211.94%

주: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 참고. 도표는 박은경(2011)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학생 유치는 중요하게 인식된다. 조세현(2012)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인력별 유치 비용과 경제적·비경제적 편익을 예측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은 총 1,614.38억원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2,133.18억원으로 순편익은 518.8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2022년에는 총 비용 4,832.81억원, 편익이 6,412.47억원으로 순편익이 1,579.6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김판준, 2013).

이를 인력 구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의 순편익은 251.1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학생 208.60억원, 저숙련 근로자 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이와 다르게 외국인 유학생의 순편익이 846.99억원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다음이 전문인력 625.10억원, 저숙련 근로자 107.57억원 순이었다(조세현, 2012)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총 순편익이 크다는 것은 향후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타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판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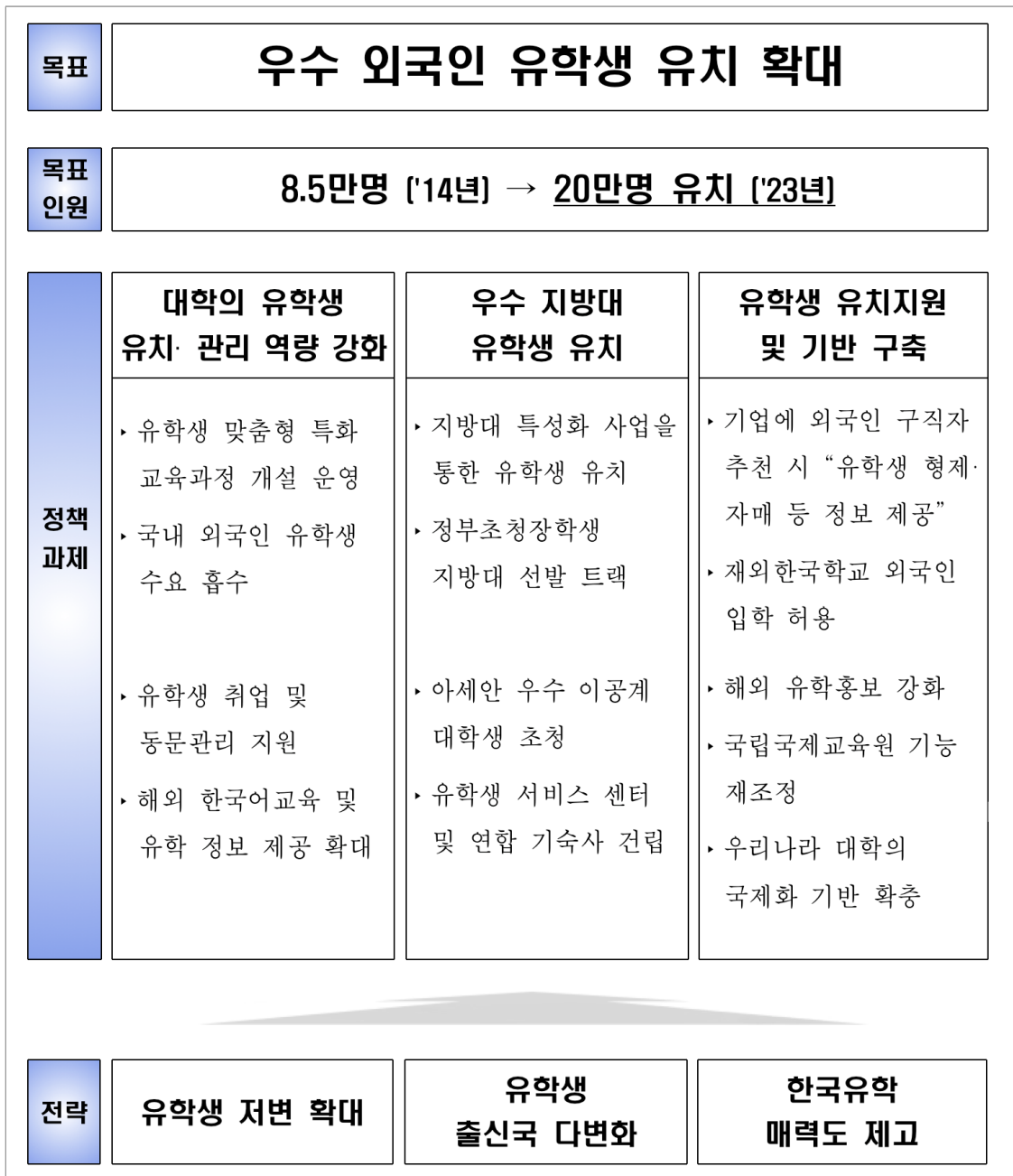
<표 II -7> 2022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저숙련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2012년	비용	358.48	584.41	670.49
	편익	417.48	836.61	879.09
	편익-비용	59.00	251.20	208.60
2022년	비용	653.65	1456.70	2722.46
	편익	761.22	2081.80	3569.45
	편익-비용	107.57 (1.82)	625.10 (2.49)	846.99 (4.06)

주: 조세현(2012)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안은 2012년 대비 2022년 편익-비용 증가배수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수립을 통해 2023년까지 최대 20만 명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저변 확대, 출신국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의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①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②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③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의 정책 과제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도식은 아래 [그림 II -5]와 같다(교육부, 2015).



[그림 II-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추진 계획(교육부, 2015)

이상과 같이 정부 및 대학은 유학생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학업생활 적응 지원, 취업지원 확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과제는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정유리, 2018) 특히 대학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2. 유학생할 적응과 가족의 역할

가. 유학생의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대학의 정책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더딘 성장의 모습을 보인다(오혜영, 이윤희, 2018).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핀 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유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조력과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오혜영, 이윤희, 2018).

일반적으로 이주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된다(Sandhu & Asrabadi, 1994, 유명란 외, 2013, 재인용).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Berry, 2003) Sandhu와 Asrabadi(1994)는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관련 연구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하위영역으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II-8>과 같다.

<표 II-8>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하위영역	구체적 내용
지각된 차별감	차별, 대우 및 보상, 편견, 동등한 기회
지각된 미움	문화 및 가치관의 인정, 직간접적인 적대감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낯선 환경의 생활
두려움	신변 위협, 낮은 자아상, 대인 기피
문화적 충격	압박감, 언어, 음식, 문화 적응력
죄책감	가족과 친구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
기타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주: 도표의 내용은 정지숙(2013), 김현진(2016)을 참고로 작성

외국인 유학생은 모국어와 다른 새로운 언어,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교육체계에 적응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Holleran & Jung, 2005, 유명란 외, 2013, 재인용). 연구

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하거나 없는 유학생의 경우 학업성과 저하를 비롯하여 우울, 혼란, 긴장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Hovey 2000; Pederson 1991),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같은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거나 (Prieto 1995)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 및 교수들과 연결해 주는 등(Abe et al. 1998)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안리, 2017).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한다(Cohen & Syme 1985; Furnham & Bochner 1986, 장안리, 2017, 재인용).

또한 신인철 외(2018)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 실태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족 지원, 교직원 지원, 동료 지원 등의 사회관계적 요인이 유학생들의 목표 몰입과 학교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몰입과 학교 몰입이 높은 유학생의 경우 학업 계속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들의 지원은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신혜종(1998) 또한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적응에 있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응능력 등이 유학생 가족들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족 현황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동반비자(F-3-1)를 발급받을 수 있다(법무부, 2020). 통계에 따르면 동반비자(F-3-1) 발급자는 2010년 이후(15,112명)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21,973명)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주영, 박민정, 2019). 국내 대학에서 유학비자(D-2)로 6개월 체류한 학사과정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은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초청된 가족들은 동반비자(F-3-1)를 발급받게 된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7)’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 꼴로 배우자가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인 56%만이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관련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한 2,506명 중 54명이 유학생 가족이었으며, 그 중 27.5%는 동일한 유학생 신분으로 56.9%는 동반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주영, 박민정, 2019).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의 수는 적었으며, 대부분 함께 배우자와 함께 유학생생활을 하거나 가족의 학업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유학생 배우자의 체류자격 설문결과(2017년)

구분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전문 인력	유학생	재외 동포	영주자	결혼 이민자	기타	계
인원(명)	3	1	3	14	-	-	1	29	54
비율(%)	5.9	3.7	5.9	27.5	-	-	2.0	56.9	100

주: 장주영, 박민정(2019) 참조. '기타' 는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등이 포함됨

유학생의 가족은 동반비자의 형태로 입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은 거주환경, 자녀교육, 배우자의 취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현재보다 가족들과의 동거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장주영, 박민정, 2019).

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국내 대학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대학 내에 유학생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캠퍼스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유학생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국내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보경 외, 2012).

김현상(2012)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 교육 실태 분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교과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교과과정의 경우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말하기 교육,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과목, 언어교환 프로그램, 튜터링 등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의 경우 국제교류 동아리와의 교류, 외국인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학당 등 교내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보경 외(2012)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총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단체와의 교류, 외국인 대상 특화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으로 교내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지혜(2017)는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업증진', '대인관계', '문화교류', '진로 및 취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상 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내 대학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아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제공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및 특징
한국어 능력 향상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성균관대) 기초 교양강좌 외국인 학생 전용분반 개설 (연세대) 기초한국어 글쓰기 의무수강, 수준별 교육 실시
문화 적응	(경희대) 외국인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 실시 (성균관대) 1학년은 대부분의 과목을 유학생 동료와 수강하도록 지원 (연세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강좌 개설
한국학생과의 교류	(부산대) 전 학과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튜터링 실시 (숙명여대) 한국인 학생과의 1:1 버디 프로그램 운영 (한동대) 유학생에게 한국어 지도 시 사회봉사 1학점 취득
특화된 오리엔테이션	(연세대) 외국인 신입생 대상 총 3일간의 집중 글로벌 세미나 실시
교내 기관과 연계	(연세대) 한국어학과 연계하여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외국인 유학생 주도	(가톨릭대) 성적우수 외국인 학생이 TA로 활동하며 전공수업 지원

주: 김현상(2012), 이보경 외(2012), 김지혜(2017)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각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능력 교육, 문화 적응을 위한 교과목 개설,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확대, 특화된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내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멘토가 되어 전공수업을 지원하는 가톨릭대학교의 TA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학생을 교육에 있어 수혜자 및 수동적인 참여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 미국 대학의 유학생 가족 지원 노력

전 세계에서 대학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에서는 최근 수십 년 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국 내 유학생의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20).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유학생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8~2019년에 등록한 유학생의 수는 369,548명이며 전체의 약 33.7%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인도 202,014명(18.4%), 한국 52,250명(4.8%), 사우디아라비아 37,080명(3.4%), 캐나다 26,122(2.4%) 순으로 나타났다(박성훈, 2019.11.23.).

Martirosyan 외(2019)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및 사회지원 서비스관련 연구를 통해 2016년 가장 많은 수의 유학생을 유치한 상위 20개 대학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영어 교육 프로그램, 학업 지원과 학생 성공관련 프로그램, 글쓰기 지원, 사회 문화행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Martirosyan et al., 2019:180)

Theme	Relevant codes
English language programs	English classes Language exchange; Conversation partners American culture and conversation class American language program English conversation hours Practical English tutorials Accent reduction sessions
Academic support and student success initiatives	New student orientation Advising and counseling Academic tips Workshops/webinars on U.S. academic life Tutoring Supplemental instruction
Targeted writing support	Writing centers Writing consultants
Social and cultural events	International Education Week Global festivals World fair Heritage and culture celebrations Meet-and-greet receptions Sightseeing trips Weekly coffee hour Global siblings program Global student mentors program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shops	Job search strategies Finance management Tax preparation
Family member programs	Support programs English classes Day care

위 분류에 따르면 유학생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대학은 유학생 배우자 지원 프로그램, 영어 수업, 자녀 보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학생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UCLA는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여 매주 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카네기멜론대는 교외 기관과 연계하여 배우자를 대상으로 요리, 공예,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대는 유학생과 배우자를 위한 무료 영어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생후 6주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 및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반나절에서 종일까지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Martirosyan et al., 2019).

그 외의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 가족들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MIT는 매주 화, 목요일에 유학생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어 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버드대(HSSPA: Harvard Student Spouses and Partners Association)와 예일대(ISPY: International Spouses and Partners at Yale)에서도 대학 내 공식 조직을 통해 통해 음악, 미술, 운동, 독서 등 관심사에 따라 배우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탠퍼드와 노스웨스턴대에서는 유학생 및 배우자를 위해 정기적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대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한 ID 카드 발급을 통해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생 및 배우자들을 위한 생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학에서는 우수한 유학생 유치에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문제 및 상황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유기웅 외,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 가운데 Strauss와 Corbin(2001)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은 연구 참여자가 겪은 현상 및 경험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유기웅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각 요소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현상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고자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정종원, 2017).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지방 소재 종합 사립 A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배우자’로 대상 기준을 정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기혼 여부는 입학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부서 직원 및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의 협조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였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A대학의 경우 2020년 기준 대학원 포함 13,68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은 1,017명으로 약 7.4%를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학위 과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대학알리미, 2020).

<표 III-1> A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 현황(2020년)

구분	학사	석사	박사	비학위과정	계
학생 수	342	201	181	203	1,017

해당 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201명 중 유학생 등록 상위 5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85명), 방글라데시(40명), 중국(25명), 인도(11명), 파키스탄(9명) 순으로 나타났고, 박사과정의 경우 베트남이 가장 많은 83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32명), 방글라데시(17명), 인도네시아(12명), 파키스탄(9명)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대상자 표본 추출을 위해 국제교류 부서의 유학생 담당 직원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 4가정, 인도네시아 2가정, 방글라데시 1가정, 우즈베키스탄 1가정, 총 8가정, 16명의 유학생 및 가족이 연구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연구 참여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수집을 위해 국가, 전공, 종교, 한국어 구사 능력, 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하기보다 최초 의도적 표집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 수집할 데이터를 선정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5가정, 10명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더 이상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계인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세부 정보는 아래 <표 III-2>와 같으며, 표 항목 중 ‘구사 언어’는 면담 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즉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대화를 무리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

번호	구분	국가	성별	연령대	체류기간	구사 언어	자녀 유무	비고
1	유학생	베트남	남	30대	3년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있음	가정1
2	배우자	베트남	여	20대	2년	베트남어, 한국어		
3	유학생	베트남	남	30대	4년6개월	베트남어, 영어	있음 (임신중)	가정2
4	배우자	베트남	여	20대	3년	베트남어		
5	유학생	인도네시아	남	30대	3년	인도네시아어, 영어	없음	가정3
6	배우자	인도네시아	여	20대	2년6개월	인도네시아어		
7	유학생	인도네시아	남	30대	3년	인도네시아어, 영어	없음	가정4
8	배우자	인도네시아	여	20대	2년6개월	인도네시아어		
9	유학생	방글라데시	남	30대	3년	방글라데시어, 영어	없음	가정5
10	배우자	방글라데시	여	20대	2년6개월	방글라데시어, 영어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으로 수집되었으며, 면담은 각 가정별로 진행하였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는 영어 통역자 및 베트남어 통역자가 배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영어 통역에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경험이 있는 재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베트남어는 지역 베트남협회 회장이 통역을 실시하였다. 통역자에게는 연구 참여자의 발화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통역하도록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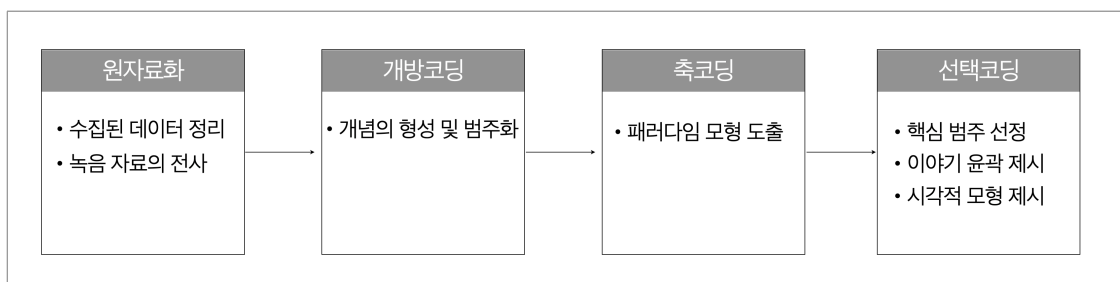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내 스터디룸을 대여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도서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8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창문은 없으며 기본 LED 조명과 더불어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추가로 사용하여 면담 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확인,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평균 5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이메일을 통해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목적 및 개요, 사전 질문 내용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실제 면담 시작 전, 이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 후 캠코더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안정된 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 녹음도 동시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 내용의 전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면담 내용을 녹화한 파일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 후 번역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파일은 연구 참여자에게도 발송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방법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에서 제시하는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실제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생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유기웅 외, 2012). 근거이론 방법은 양적 연구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인의 경험, 사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적용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들이 처한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면담 기록과 현장 노트 등을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줄 분석을 통해 개념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들의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개념들은 각각 대표성을 가진 추상적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각각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재배열 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유학생, 유학생 가족, 총 2개의 패러다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영역별 교육 수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통해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교육요구에 대한 핵심범주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과정은 아래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단계별 자료 분석과정(유기웅 외, 2012)

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면담 환경 조성이다. 면담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을 보인다(Lincoln & Guba, 1985). 이를 위해 먼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 후 대학 담당자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렇게 섭외된 참여자들에게는 메일을 발송하여 연구 목적 및 참여자의 권리, 비밀 보장과 관련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후 면담 진행 전 연구 서약서를 2부 작성 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각각 1부 씩 보관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연구자 참여확인(member check) 및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적용이다. 녹화한 면담 기록 영상과 전사한 면담 기록지는 연구 참여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질적 연구 전문가가 참여한 삼각검증법 적용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연구 참여자의 면담기록,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노트, 기타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의 유사성 및 차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개념과 범주를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학생의 경우 총 3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반복적 비교를 통해 이를 다시 19개의 하위 범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해당 하위범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시 11개의 상위범주로 분석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IV-1>과 같다.

<표 IV-1>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번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1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기숙사를 나옴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	가족의 입국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2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필요함	본국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을 초청함		
3	가족이 보고 싶어서 한국에 초청			
4	연구비가 적어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느낌	경제적 제약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인한 제약 발생	
5	본국과의 환율 차이로 인한 물가 부담			
6	어린이집 학비가 지원되지 않음	법적 제약		
7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걱정됨			
8	비자의 활동 제약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 불가			
9	사용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 발생	언어적 제약		
10	대학 차원의 교육 및 안내 부재	대학 내 기관의 정보 제공 부족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부족
1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무부 제공 이민자 정보 서비스	대학 외 기관의 정보 제공 부족		
12	퇴근 전까지는 종일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		

번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13	아내가 외로움을 느낌		
14	병원에서 의사와의 소통이 어려움	한국어 능력 부족	가족 부양으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 발생 및 해결 역량의 부족 인식
15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소통의 한계로 교육에 문제를 느낌		
16	배우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만한 실력이 되지 않음		
17	같은 국가 및 종교 유학생 선배를 통해 유학 초기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음	같은 국가 및 종교 유학생 커뮤니티의 도움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교류 경험
18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 의무 교육시간이 부족함	유학생 대상 교내 한국어 교육 수강 경험	대학 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경험 및 한계점 인식
19	수업시간에 배운 한국어 문법과 실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임		
20	교내에 유학생 가족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지 않음	유학생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21	같은 국가 유학생 가족들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냄	같은 국가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와 교류	
22	무슬림 센터에서 만난 유학생 및 가족들과 시간을 보냄	같은 종교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와 교류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
23	유학생 선배가 소개해 준 한국인 가정과 정기적으로 교류	한국인 가정 멘토와의 교류	
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좌 수강	공공기관 개설 한국어 무료 강좌 수강	외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25	시청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 수강		
26	월세 등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함	생활 정보 관련 안내 요구	
27	유학생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개설이 필요함	한국어 심화 교육 요구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심화 교육 요구
28	가족과의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시간의 추가가 필요함		
29	신입 유학생 대상 환영회 실시	유학생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유학생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30	세계 음식 축제와 같이 유학생 대상의 이벤트 개최		
31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어린이집 선생님과 대화가 가능함	학습을 통한 생활 적응능력 향상	학습을 통한 생활 적응능력 향상
32	한국어 교육 수강 후 물건 구매와 같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함		

개방 코딩 결과 유학생들은 입학 초기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가족들의 동반비자(F-3) 자격 취득 요건은 유학생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주어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유학생들은 입국 초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해 나간다. 하지만 가족과 동거하면서부터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문제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면담 결과 유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며 가족 부양에 필요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동시에 부동산 계약 등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를 나타냈다. 또한 생활 적응을 위해 신입생 환영회, 유학생 대상 이벤트 개최 등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도 드러냈다.

이러한 교육 요구의 형성에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인한 경제적, 법적인 제약, 그리고 가족 부양에 필요한 생활정보 부족과 같은 맥락적 조건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더불어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교류 경험,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 경험과 같은 중재적 조건 또한 유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 요구에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유학생들은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타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같은 국가 및 종교를 가진 유학생들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한계 또한 경험하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심화된 생활정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학생 가족의 경우 개방 코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31개의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반복적 비교를 통해 이를 다시 17개의 하위 범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해당 하위 범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시 10개의 상위범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개념과 범주

번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1	유학생의 생활 지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입국	유학생 학업지원을 위한 입국	한국 이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
2	비자의 활동 제약으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 불가	법적 제약	외국인 유학생 가족 신분으로 인한 제약 발생
3	사용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 발생	언어적 제약	

번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4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음	인간관계의 한계	
5	주부로서 대부분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느낌	외로움	유학생 가족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6	본국에 비해 친구가 많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낌		
7	한국어를 잘 몰라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고 위축됨	걱정 및 두려움	
8	본국과 교육과정이 달라 자녀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됨		
9	대학 진학(박사과정)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됨		
10	자녀 교육 및 양육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함	필요성 - 자녀 유무	
11	한국에 오래 머무를 예정이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이 필요	필요성 - 졸업 후 계획	
12	본인(아내)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필요성 - 진학 유무	
13	한국 온라인 쇼핑물 시스템이 편리하여 한국어 학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필요성 없음	
14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심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5	한국어는 일반적인 대화만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16	같은 국가 유학생 가족들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냄	같은 국가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와 교류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에 참여
17	무슬림 센터에서 만난 유학생 가족들과 시간을 보냄	같은 종교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와 교류	
18	한국인 가정과 정기적으로 교류	한국인 가정 멘토와의 교류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좌 수강	공공기관 개설 한국어 무료 강좌 수강	외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
20	시청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 수강		
21	한국어 위주의 교육경험. 다른 교육은 받지 못함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학습에 대한 한계 인식
22	다문화교육센터의 거리가 멀다	교육기관의 접근성 문제	

번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23	수업시간에 배운 한국어 문법과 실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임		
24	수업시간에는 잘 들리나 실생활에서는 한국인들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학습 내용을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 발생	
25	대화할 대상이 없어 실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움		
26	한국어 교육을 통해 여러 사람을 알게됨		
27	교육 시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트레스가 풀림	학습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	학습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
28	어린이집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기존에 가졌던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		
29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요구	추가 심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30	한국어 교육 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한국문화 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외 개설 요구	
31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화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추가 심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추가 심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유학생 가족들 또한 면담을 통해 한국에서 유학생 가족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 모두 유학생할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홀로 보내고 있었다. 유학생의 배우자들은 이러한 역할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동시에 본국과 달리 소통하는 사람이 적은데서 오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언어와 문화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활 및 자녀양육에 있어 걱정,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유학생들이 타문화권에서 적응하며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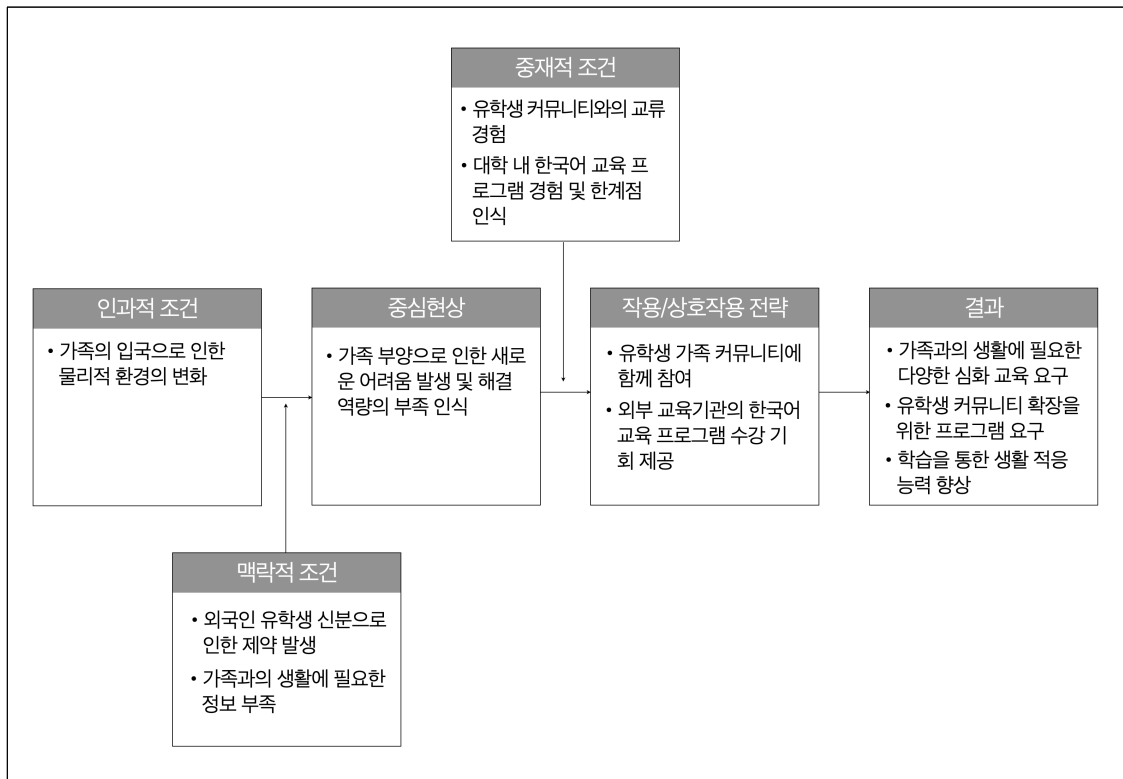
유학생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국가, 같은 종교의 유학생 가족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그들

과 교류하고 있었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유학생 가족들이 얼마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학 내 교육 요구에는 각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 경우에는 교육 요구가 높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요구가 낮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유학생 가족들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타지인 한국에서 유학생 가족들이 맺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학생 동료와 그 가족들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가족들은 새로운 교육 경험을 통해 한국인 교사와 학습 동료를 만나며 유학생 배우자라는 심리적 종속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유학생 가족들은 물리적 환경 및 역할의 변화로 인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중심현상에는 언어적 제약, 인간관계의 한계, 비자로 인한 취업 불가 등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신분으로 인한 제약과 같은 맥락적 조건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유학생 가족들의 교육적 요구의 차이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학생 가족들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및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획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공통적으로 비형식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교육 수요를 드러냈다.

2.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개방 코딩을 통해 생성된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축 코딩을 거쳐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에 보다 접근하고자 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방법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된다(유기웅 외, 2012). 개방 코딩을 통한 분석결과,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의 교육적 요구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나 상이한 부분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교육요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학생, 유학생 가족으로 각기 나누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IV-1] 과 같다



[그림 IV-1]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패러다임 모형

가. 가족의 입국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인과적 조건)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 교육 수요에 대한 원인은 유학 및 가족 이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언어, 문화, 경제적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유학생 초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거나 약한 입국 초기에는 자신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인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래서 연구라든지 일할 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받는 돈도 적어서 생활하기에 빠빡했죠.” (유학생 2)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3년 전에 왔었는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가족과) 같이 함께 살고 싶었어요.” (유학생 1)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연구실에서 실습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이처럼 정서적인 지원 측면에서 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학생 3)

가족들이 입국함에 따라 유학생들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기숙사를 퇴소하고, 교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지출비용 증가 등은 유학생으로 하여금 가족 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일단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들어서 살게 되면 생활이 더 뻘뻘해져요.” (유학생 2)

“원래는 기숙사에 있었어요. 거기서는 (기숙사비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비도 내야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두 배로 돼요. 그리고 생활비도 많아지고.” (유학생 2)

나. 유학생 신분으로 인한 제약과 정보의 부족(맥락적 조건)

유학생의 대학 내 교육요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인한 제약 및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자의 한계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본국과의 환율차이,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서의 경제적, 법적 제약으로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 베트남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밥이 많이 비싸요. 편의점에 갔었는데 (음식이) 많이 비싸요. 한국 가격과 베트남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많이 비싸서 많은 것은 사지 않아요. 가격하고 음식. 이거 두 개(가 힘든 점이에요).” (유학생 1)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도 대학 내 교육요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 모두 가족과의 생활과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제공 받은 교육 및 정보는 없거나 적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정보는 다 선배에게 받았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받은 것은 없었어요. 가족과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받은 정보는 없었어요.” (유학생 1)

다. 가족 부양자로서의 어려움 및 해결역량의 부족(중심 현상)

유학생들은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 부양자로서의 고민도 가지고 있었다. 유학생의 경우 짧은 시간 학위취득을 위해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학생 가족들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홀로 보내게 된다.

“아침에 대학교 가고, 점심에 집에서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오후에 학교 가고, 또 저녁 먹다가 시간되면 운동하고. 시간 없으면 또 학교 가고 그래요.” (유학생 2)

“(아내는) 일어나면 아침 준비를 하고요. 제가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는 점심을 준비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요. 저녁을 먹고 또 다음날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 4)

연구 참여자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학생들은 가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나 가족들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한국에 혼자 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이 한국에 와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복잡해요.” (유학생 1)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아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다섯 살이에요. 그래서 숫자나 한글을 많이 공부해야 해요. (교육을 위해) 책을 샀지만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어요.” (유학생 1)

또한 사용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한 면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유학생의 경우 연구실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라.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교류경험 및 교육의 한계점 인식(중재적 조건)

유학생들이 가족과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식을 매개하는 조건은 바로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교류경험 및 한국어 교육의 한계점

인식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같은 국가의 유학생 및 같은 종교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통해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주 모이지는 못하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유학생들 간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구축된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처음 왔을 때, 이미 한국에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방법들을 안내해 줬고요. 많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오면 기숙사나 사는 곳 까지 안내해 줍니다.” (유학생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글라데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 주변에 이슬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곤 합니다. 센터에서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정보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무슬림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유학생 5)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좌 등의 수강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인식한 한계점도 교육적 요구의 형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실제 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 의무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내에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점도 이들의 인식을 매개하고 변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마. 가족에게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기회 제공(작용/상호작용전략)

유학생들은 기존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경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경험 및 한계점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고, 외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 간 가족의 부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자신의 해결역량 부족을 극복하고 있었다.

“아내는 주부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하고요. 일반적인 주부가 하는 일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식사를 준비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모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가족과 같이 한국에 오거든요.” (유학생 3)

유학생들은 같은 국가의 유학생 가족들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유학생 선배가 소개해 준 한국인 가정과의 교류를 통해 비형식적 학습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최

근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힘든 상황으로 한계가 있으나 SNS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와 교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근처에 이슬람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러 그 곳에 갑니다. 하지만, 최근 펜데믹 상황 때문에, 작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유학생 3)

“요새 코로나라서 모이기 힘들어 신입생들은 보지 못했고요. 모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통해서 정보를 받곤 합니다.” (유학생 2)

또한 유학생들은 가족에게 시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개설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다.

바. 심화 교육요구 및 커뮤니티 확장 욕구(결과)

유학생들은 가족들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심화 교육 요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화 교육 요구에 있어서는 가족과의 생활을 위한 한국어 심화교육, 가족들을 위한 대학 내 한국어 교육 과정 개설요구 등이 있었다.

“대학에서 가족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생 4)

또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요구도 있었는데, 거주지 계약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 커뮤니티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월세 등 생활 정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는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사나 석사 공부할 때 한국어를 100시간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려면 100시간 (수업)이 부족해요. 많이 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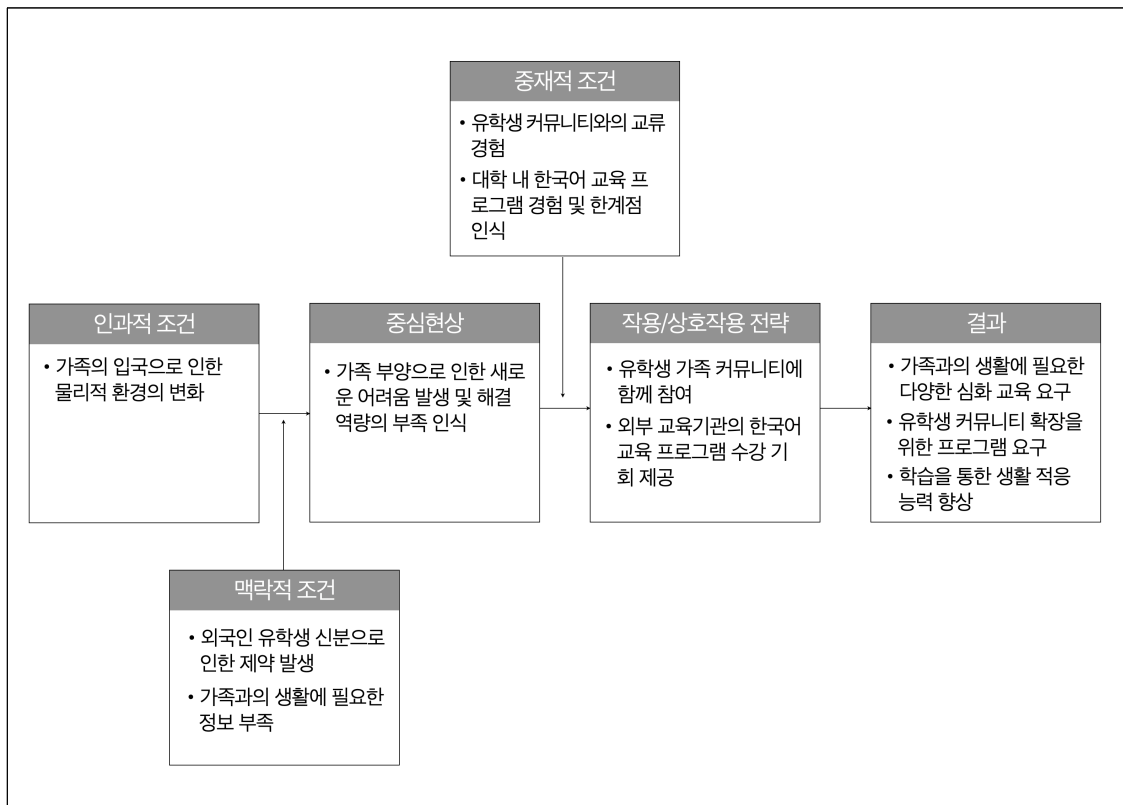
“여기 와서 거의 공부만 하니까. 예를 들면 월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생 2)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일부 유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학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요구보다 유학생 대상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요구를 나타내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환영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후에라도 음식 문화축제, 음악 공연 등 몇몇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한국인도 참여하는 이벤트요. 서울, 대전 같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식이나 이벤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큰 장소가 아니더라도 작은 장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서로 잘 몰라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방글라데시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무슬림 커뮤니티는 알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지나가다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지요.” (유학생 3)

3.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다음으로 축 코딩 과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IV-2] 과 같다



[그림 IV-2]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의 패러다임 모형

가. 한국 이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인과적 조건)

유학생 가족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적 요구의 근본 원인은 본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나. 유학생 가족 신분으로 인한 제약 발생(맥락적 조건)

한국 이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학생 가족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 요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은 유학생 가족 신분으로 인한 제약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본국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나 현재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종속비자의 특성 상 향후 계획도 유학생에게 종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아내도 인도네시아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의 경우 남편이 유학을 하는 경우 3년 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학생 4)

외국인 유학생은 법령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족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가족은 F-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유학생 비자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한국에는 저 혼자 왔고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아내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를 초대하려면 먼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유학생 3)

“아내는 한국에서 직업이 없습니다. 주부이고요. F-3 비자입니다. 이것은 종속 비자를 의미하는데요. 저의 비자는 D-2, 학생 비자이고요. 아내는 F-3 비자입니다. 가족(Family) 비자. 아내는 주부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하고요. 일반적인 주부가 하는 일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식사를 준비하고요.”(유학생 3)

비자의 활동 제약으로 인해 가족들은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발생 등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된다.

다. 유학생 가족으로서의 삶과 어려움(중심현상)

대부분의 유학생 가족들은 유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주부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홀로 보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본국과 달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적은데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요. 오후에는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해요. 저녁에는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밥 먹고 그냥 자요.” (가족 1)

“베트남보다 여기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운 부분도 있고. 남편과 있지만 남편도 바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남편이랑만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 2)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구사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국과의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유학생 가족에게 하나의 문제로 발생된다.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 문화, 한국 생활이 낯설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요. 밖에 나갈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 저는 아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었어요.”(가족 1)

“한국에는 다섯 살에 수학 공부를 해요. 하지만 우리 베트남에서는 더하기 빼기를 아홉 살에 공부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섯 살에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킬 지 어려워요.”(가족 1)

라.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중재적 조건)

유학생 가족의 교육적 요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매개하는 조건은 한국어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 경우, 본인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에겐 아이가 있는데 이제는 아이가 다섯 살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 한국어 공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 1)

“저는 베트남에서 석사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족 1)

또한 K-POP, K-드라마 등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이와 관련한 한국 문화를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사실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가끔 배우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집에서도 드라마로 한국어 연습을 해요.” (가족 4)

반면 자녀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다수가 배우자의 학업이 마치는 데로 귀국할 예정이라 한국어 심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어 구사실력은 물품 구매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 생각에는 물건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아내는 비록 한국어 단어를 몇 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대화도 가능하고요.” (가족 2)

마.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 참여 및 외부 교육 수강(작용/상호작용전략)

유학생 가족으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유학생 가족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다문화센터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대학교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주 한 번씩 전화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가족 1)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강좌의 상당수가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비해 타 수강생과의 교류가 적어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면 수업일 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웹엑스로 하게 되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지난번엔 많은 분반이 개설되었지만 이번에는 두 분반만 개설되었어요” (가족 4)

한국어 교육의 경우 대학에서는 유학생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청에서 개설된 무료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다. 또한 유튜브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한국어 강좌 및 문화를 학습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한국언니(Korean Unnie)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고요.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집에서 혼자 책으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가족 5)

바. 학습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 및 추가 교육 요구(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축 코딩을 실시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 교육 기관의 접근성 문제, 학습내용을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학습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별히 교육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언어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답변보다 정서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있고 … 교육받을 때, 여러 사람들 알게 되고 만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푸는 느낌이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족 2)

“(한국어 배우는 것은) 재미있어요. 이제는 아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한국어 너무 좋아요.” (가족 1)

추가 심화프로그램의 요구 부분은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가 없거나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경우에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 한국어의 경우는 기본적인 대화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어는 일반적인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필요한 거고, 지금은 대화 말고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남편이 공부 끝나고 졸업하면 베트남을 갈 예정이거든요.” (가족 2)

4. 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의 교육적 요구의 핵심범주

축 코딩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대학 내 교육 요구의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핵심범주란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생성된 개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추상적인 범주를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2).

먼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 요구의 핵심범주는 ‘유학생생활 간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들은 가족들의 입국으로 인해 유학 초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했지만 지출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가족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을 면담을 통해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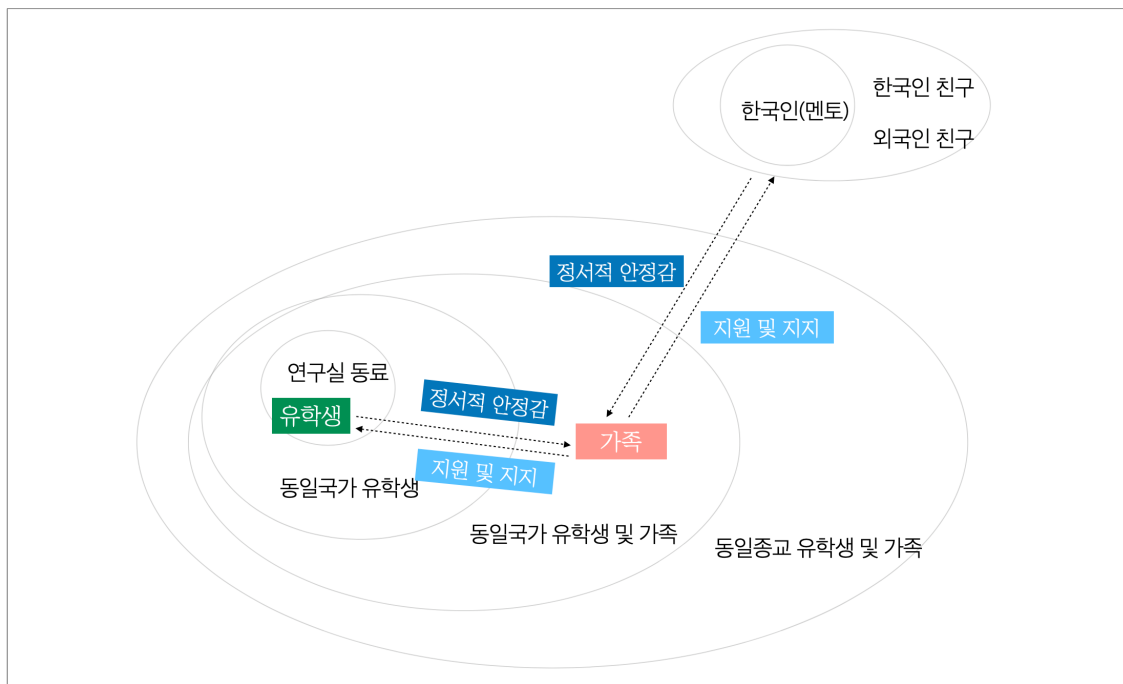
하지만 본국과는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유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가족을 초청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이 충족해 주지 못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었다. 또한 외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정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기관 및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외부기관 및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의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학이 주관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면담을 통해 드러냈다.

유학생들의 교육 요구는 그들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자녀가 있는 경우, 졸업 후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교육 수요를 나타내었다(유학생 1).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와 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더 이상의 한국어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한국어는 기본적인 의

사소통만 가능했다. 또한 유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교육 요구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비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를 나타냈다. 반면 본국 장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세계 음식 문화 축제, 공연 등 대학 차원에서 개최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벤트에 대한 수요를 보였다(유학생 3). 이처럼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유학생의 경우 유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보다 자신들의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대학 내 교육 요구의 핵심범주는 ‘유학생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유학생 가족들은 유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입국하며, 그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 가정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낯선 문화적 환경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 및 자녀양육에 있어 걱정 및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었다.

유학생 가족들은 비자로 인한 법적 제약부터, 만나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유학생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면담 결과, 가족들은 교육 수장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모형

일반적으로 유학생 가족들은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타지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수강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 뿐 아니라 한국인 멘토 및 수강생들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학생 가족들의 주요 교육 요구는 정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학생의 사례와 같이 가족들의 경우도 자녀 유무, 한국 체류 계획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 수요를 나타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한 본인이 대학원 등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수강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가족 1).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자녀가 없으며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에도 K-POP 및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한국어 강좌에 대한 교육 수요를 보이고 있었다(가족 4).

V. 결론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내 교육 요구를 탐색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 요구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총 5가정, 10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가족 부양과 관련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유학 기간 동안 자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가족들의 부양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은 유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본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서적 지지기반이 된다. 이처럼 유학생의 적응에 있어 가족들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유학생들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신이 속한 유학생 및 종교 커뮤니티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는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부양으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 발생 및 해결 역량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은 한국어 학습의 형태가 다르며,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도 일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개설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나, 가족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무료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결과 및 만족도 관련 질문에서, 면담에 참여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가족들의 경우 대부분 교육 경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경험으로 응답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V-1>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의 한국어 학습 경험 비교

구분	유학생	유학생 가족
교육주체	대학	공공기관 (시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수	의무(졸업 필수요건)	선택
비용	학비에 포함	무료
교육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획득

셋째, 유학생 가족은 교육 기회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학생들은 가족들의 지원 및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 걱정,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유학생 가족들이 한국에서 맺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학생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학 기간 동안 가족들의 삶은 유학생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학생 가족들의 교육경험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가족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유학생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내 교육 요구 탐색을 통해 유학생 관리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 교육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제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생활 정보 제공 및 대학 내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이다. 현재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이민자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유학생 및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

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글로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 안내, 유학비자 발급방법, 기숙사 생활 등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초점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대학의 사례와 같이 유학생 가족비자 발급에 대한 안내, 거주관련 정보 안내, 유학생 가족 커뮤니티 및 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학생 가족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의무 교육과정을 가족들에게 확대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 내에 유학생 가족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유학생 가족들이 시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강인원의 제한, 통학 거리로 인한 불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유학생 가족들의 교육 요구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획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지식의 전수 및 확장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학생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학생 수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 설계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대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면담을 통해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수강생들 간의 소통이 적어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유학생 및 가족의 경우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강의 참여에 있어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및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유학생 및 유학생 가족들의 대학 내 교육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유학생 수가 많은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가족들의 교육 요구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된다면 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제한된 영

역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교육 요구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어려움 및 관련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대면,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경험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요구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강동관 (202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NO. 2020-08.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20). 국가별 교육 동향. 서울: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 교육부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14).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세종: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세종: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숙, 김민희 (2014).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67-88.
-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 김판준 (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3(2), 207-237.
- 김이선 (2015).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 가족 현황과 정책과제 :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ISSUE PAPER, 2015(1), 1-14.
- 김지혜 (2017).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2), 537-562.
- 김현상 (2012). 국내대학의 국제화 교육 실태 분석. 교양교육연구, 6(1), 211-240.
- 김현진 (2016).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척도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대학알리미 (2020). 대학별 공시 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
- 박성훈 (2019.11.23.) 美 유학생, 한국어 가장 많이 줄었다...10년 만에 27.6%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752>
- 박순영 (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역사회연구, 24(2), 75-102.
- 박은경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2). 113-139.
- 법무부 (2020).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천: 법무부
- 배소현, 김희수. (2014).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향-. 교육연구, 37, 67-89.
- 백성준 (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신인철, 한지은, 박효민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 실태와 요인. 다문화사회연구, 11(2). 105-133.
- 신혜중 (1998).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이용한 유학생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6(2). 199-212.
- 안영진,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여성가족부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세종: 여성가족부
- 오혜영, 이윤희 (2018). 국내 대학 담당자들이 인식한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과 심리지원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01-121.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명란, 최선영, 김윤미, 한수정, 양남영, 김희경, 장혜경, 이미라, 손연정 (2013).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 우울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3), 320-329.
- 이경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32, 509-536.
- 이기정 (2008).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 대학교육, 153, 17-23.
- 이보경, 김은정, 유광수, 이원경, 장수철 (2012). 쌍방향(In/Out Bound) 국제화를 지향한 대학의 교육실태와 비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4), 463-492.
- 이안나, 박경아.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 문화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장안리 (2017). 국내 동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와 대응기제 방법. 아태연구. 24(2), 101-141.
- 장주영, 박민정 (2019).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9-01.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 정미경 (2008). 주한 외국 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OR2008-05-22). [KEDI] 연구보고서, 1-27.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8(2). 150-185.
- 정종원 (2017).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부장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요구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13(4). 115-146.
- 정지숙 (2013).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REBT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세현 (2012).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2, 166-170.
- 최경식 (2019).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다문화가족연구, 11(1). 1-24.
-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0). 유학·연수 수지 통계(승인번호 301008)
- Abe, Jin, Donna M. Talbot and Robyn J. Geelhoed (1998). "Effects of peer program on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9, pp. 589-547.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alls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hen, Sheldon Ed and Si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Furnham, Adrian and Stephen Bochner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London: Methuen.
- Holleran, L. K., & Jung, S. (2005). Acculturative stress, violence, and resilience in the lives of Mexican American youth. *Stress, Trauma and Crisis: An International Journal*, 8(2-3), 107-130.
- Hovey, Joseph D. (2000).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Psychological Reports*. Vol. 86, 1237-1240.
- Lee, H. J. (2012).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7(3), 129-143.
- Lewthwaite, M. (1996).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9(2), 167-18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Martirosyan, N. M., Bustamante, R., & Saxon, D. P. (2019). Academic and Social Support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9(1), 172-191.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 Pedersen, Paul B. (1991).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9, pp. 10-58.
- Prieto, Sally L. (1995).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s and needs assessment." Sally D. Stabb, Shanette M. Harris and Joseph E. Talley (eds). *Multicultural needs assessment for colleg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s*. Illinois: Springfield,. 203-223.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trauss, A. L., & Corbin, J. M.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Waller, M. A. (2001). Resilience in Ecosystemic Context: Evolution of the Concep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3), 290-291.

부 록 (면담 질문지)

[기본정보] 국가, 이름, 나이,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구사정도(상,중,하), 직업, 자녀유무

1. 평소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2. 처음, 가족이 유학을 결정할 때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3. 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한국에 오면서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바가 있으셨나요?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5. 본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도는 어떤가요? 대화는 자주 하는지?
6.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7.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언어, 경제문제 등)
8.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9. 유학생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0.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도움을 준 사람(단체)은 누구인가요?
11. 대학을 통해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안내받으신 적이 있나요?
12. 본인 비자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나아가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13. 한국에 오기 전 후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법무부 주관 한국생활교육, 멘토링, 한국어과정, 다문화체험프로그램 등)
14.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나요? 가장 도움을 준 프로그램 및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15. 수강했던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6. 본인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제공될 때 수강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17. 본인 또는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건의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18. 한국에는 얼마 정도 더 머무를 계획이신가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BSTRACT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Using Grounded Theory

Lee, Yongsung(University of Ulsan)

This research is conducted for providing efficient educational support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by exploring their educational needs. Grounded theory methods were implemente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qualitative data, mainly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dividual interviews with 10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pouses. Collect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sequentially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in order to examine specific educational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contextual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affecting the forming of such educational needs.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tional students feel safe and secure by getting support from their familie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experience new kinds of difficulties in supporting family or children raising issues.

In overall,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get living information, which help them to adapt studying and living in Korea, from the communities composed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families from the same country or from the same religion.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information, they express the needs for more systemic help and educational assistance from their university. Family members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having a hard time in adapting to a new life situation in Korea due to the changes in physical environments. Especially language barriers, limited human relationship, and jobless condition due to visa regulation are their main obstacle.

The results also present that families from international students show different

educational need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programs like Korean language, at the same time, they express common characteristic in getting emotional safety by extending their social networks through enrolling in the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the reason why informal educational service targeted to famil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s required.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by improving the quality in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through exploring their needs in education from universities, and at the same time, it arouses attention to their families who are relatively being alienated from the university's educational policy. In addition, this research implies that to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programs such as providing customized living information, expanding Korean language class for the families, and hosting an welcome gathering or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tend the social networks through informal learning should be planned and provided by universities.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 family of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al needs, grounded theory method